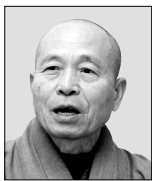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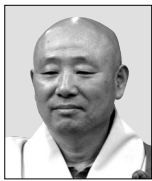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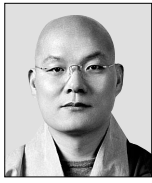
대승기신론 고운사 특강
각성 스님은 8월 18~22일 고운사 선
체협관에서 대승기신론 특강을 개최한
다. (054)833-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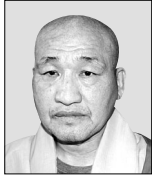
조계사 생명살림기도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8월 17일
평창 월정사에서 하안거 해제 기념 생
명살림기도를 진행한다.



취담당 일현 스님 23주기 다례제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7월
12일 마곡사 연화당에서 취담당 일현
스님 23주기 추모다례제를 개최한다.



동대부고 개교기념 초청 강연
서울 법원사 주지 보경 스님은 6월
30일 동국대 사범대 부고 개교기념 합
동법회에서 '자비 정신 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무영암 정안 개원법회
무영암 주지 성팔 스님은 6월 30일
부처님 정안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053)982-2204



산청 보림선원 철야정진
전근홍 보림선원 선원장은 7월 26일
부터 8월 1일 일주일간 산청 보림선원
에서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055)972-
9555

'무주상보시' 익명의 스님,
동국대 2억 기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몸소 실천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시는 노스님 한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노스님 한분이 조용히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찾아 2억원을 기부했다.

노 스님은 총장실로 안내해드리겠다는 학교 측의 요청과 한잔의 차도 거절하고 기금부서 한쪽의 회의 테이블에 앉자마자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부처님의 학교가 맞지요"라며, 품에서 1억 7천만원과 3천만원짜리 수표 2장을 꺼내 전달하고는 사라졌다.

절도 없고 범명도 없다며 한사코 본인을 밝히길 꺼리신 스님은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한 여타 대학과 달리, 경주에 캠퍼스를 설립한 동국대의 발전과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써 달라"고 말했다.

기부자에 대한 감사 선물과 기념 사진 촬영도 일체 거절하신 스님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다"며 "가지고 있는 글씨와 액자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에 기증하러 다시 오겠다"는 말씀만 남기고 학교를 떠났다.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스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겨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참사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발길 머무는 곳 희망 노래 전해”

최초 비구니 군승 명법 스님

“이렇게 군승으로 장병들을 만나게 된 것도 인연입니다. 인연따라 발길 닿는 곳에서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네요.”

1968년 군승제도 실시 이후 최초의 여성 군승장교이자, 비구니 군승으로 임관한 명법 스님은 아직 군복보다 장삼이 편하다며 맑은 웃음을 보였다.

6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명법 스님은 이날 최조라는 명예에 맞는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 1군단 산하 벽제군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인 명법 스님은 “부상당해 아픈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특히 수행자의 마음으로 군내 총격사건 등의 참사를 예방하는 상담 등에 주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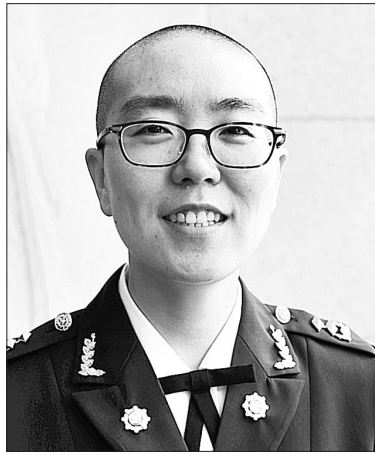
학생군사학교에서 전방부대를 지원했던 스님은 여성으로서 특별한 대우받기를 거부했다. 학생군사학교에서는 수류탄 투척을 비롯해 다양한 군사훈련을 모두 수료했다.

“사실 수류탄 투척 등을 비롯해 여성의 몸으로 소화하기 힘든 여러 훈련과 과정이 있었어요. 부족한 제가 졸업한 것이 감사할

때입니다. 이렇게 군포교에 임하게 된 것이 인연 같습니다. 힘든 과정인 만큼 장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스님은 군대의 존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군종장교들이 성직자, 수행자임에도 군대에 있는 것은 옛 의승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창과 칼을 들었던 이치와도 같다고 했다.

“무기는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서부전선 1군단 벽제 병원 부임
군장병 심리상담 등 감성포교
“군대는 평화지키기 방편” 강조

따릅니다. 이렇게 군포교에 임하게 된 것이 인연 같습니다. 힘든 과정인 만큼 장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스님은 군대의 존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군종장교들이 성직자, 수행자임에도 군대에 있는 것은 옛 의승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창과 칼을 들었던 이치와도 같다고 했다.

“무기는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다른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군대의 존재, 무기를 쓰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에서 장병들에게 이런 점을 전하고 싶어요.”

스님은 끝으로 다른 비구니 스님들이 보내준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주변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며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주어진 최조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임관신교식은 신임 군승 47기(군종 72기) 13명이 참여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임관을 신고했다.

자승 스님은 “군포교 최전선에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달라”며 “본인의 임관으로 군포교 전기가 마련된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군승후보생으로 32명의 스님들이 지원하는 등 불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임관한 비구니 군승 명법 스님 외에도 민간성직자로 군법당에서 2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중대에서 이들의 공로를 치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공로 치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봉은사, 북한어린이 영양 지원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7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지원하는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지정기탁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영양결핍과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북녘의 아이들에게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대홍사 천운 스님 4주기 다례제



해남 대홍사(주지 법각)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대홍사 조설)의 4주기 다례제 및 부도탑 제막식을 6월 28일 봉행했다. 이번 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위원장 밀운 스님, 어산장 동주 원명 스님, 압도 스님, 대홍사 회주 보선 스님, 대홍사 주지 법각 스님 그리고 호남지역 각 교구 주지스님들과 대홍사 각 말사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약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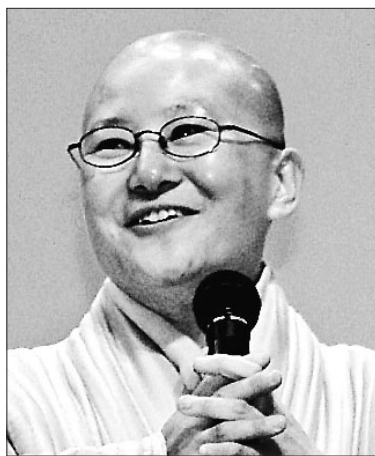
“봉사는 육바라밀 온전히 실천하는 길”

지구촌공생회 신임 케냐 지부장
탄하 스님

전하기 너무도 들려오는 의성 관음사 주지 탄하 스님의 목소리는 경쾌했다. 스님은 10년 넘게 재직해온 의성군노인복지관장직을 지난 달 내려놓았다. 8월부터는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케냐 지부장으로 직전을 옮긴다.

“2년 전 혼자 아프리카로 배낭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현지인들과 교감하면서 제가 막연히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지더군요. 이곳에 와서 나를 좀 더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어린이들 중에는 교육이 미래 아이들의 사회, 경제적 차이로 이어지면서 빈곤은 대물림되고 있죠.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요. 예전부터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은 거죠.”

스님은 앞으로 교육지원, 농장지역, 식수 지원 등 지역개발사업의 총괄운영을 맡게



된다. 지구촌공생회가 케냐에 건립한 학교는 3곳. 올해 한 곳이 더 개교할 예정이고 교육운영까지 책임질 예정이다. 7천평 정도의 농장에 채소와 곡물을 키우는 지역주민 일자리 사업도 돌봐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농장을 양도할 계획이다.

라오스, 몽골, 네팔 등 지구촌공생회가 세계 각지에 둔 지부는 6곳. 스님이 지부장으로 있는 곳은 케냐가 유일하다. 6년 전부터 지구촌공생회 후원자로 활동해오다 해외봉

사 자원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중생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보현심원을 가장 좋아했다는 탄하 스님. 그 중에서도 좋은 일은 널리 나누겠다는 열 번째 보게회향(普皆迴向)이 마음에 남는다. 이기주의 대신 이타주의를 실천해 완벽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보현보살의 원이 그대로 스님의 다짐이 됐다.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이유도 그것이었다. 봉사야말로 육바라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길인 듯 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처님 말씀이 좋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적극 나서서 사회에 실천해야지요. 수배 스님들 역시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면 해요. 아직 수행도 설익었는데 바깥으로 나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번잡한 곳에 있어도 자기 수행은 어디서나 된다 생각해요. 은사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에 있든 화두는 짚을 수 있는 거라고.”

스님이 케냐에 간다는 소리를 듣고 의성군불자회원 180명이 10만원씩 1800만원의 후원 기금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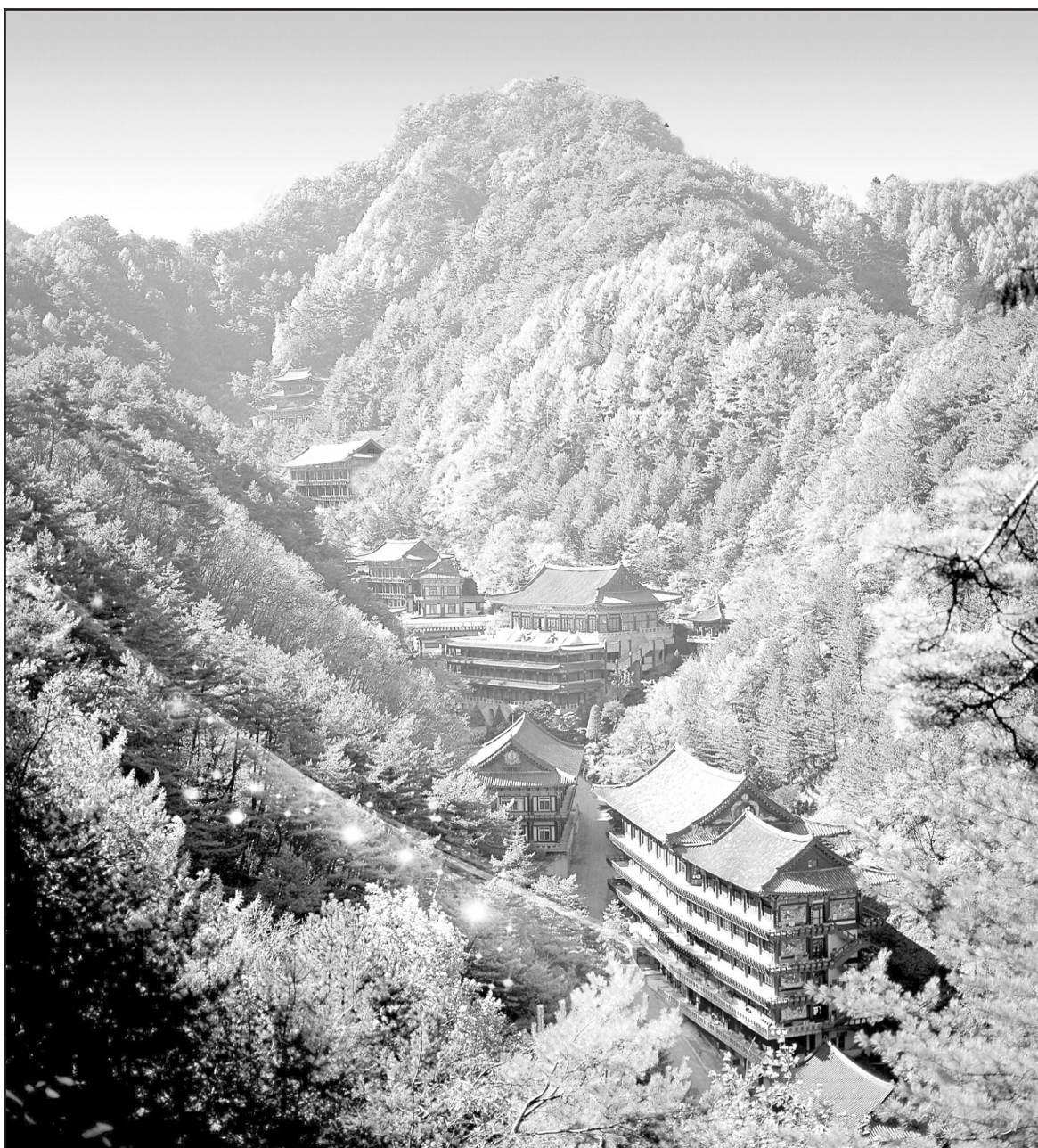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금강대, 제4기 해외봉사단 파견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7월 1~13일 12박 13일간 몽골로 제4기 해외봉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제4기 해외봉사단은 총 30명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학교에서 지원한다.

봉사단은 몽골현지에서 교육봉사(위생교육, 예체능교육, 언어교육 등), 노력봉사(환경미화, 벽화작업, 시설보수 등), 문화교류(현지 생활체험 및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박덕수

총무원

- 총무원장 변춘광
총무부장 김월도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지설혜
규정부장 조용문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감사원

감사원장 김용암
감사위원 엄행주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문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김형구

참의의원장 김학송
금강대학교총장 정병조